

## 반목에 꼬인 하늘길 머리맞대 해법 찾자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2부> 4대 현안 함께 풀자

- ① 광주·무안·군산공항 갈등
- ② KTX 호남선 경쟁력 확보
- ③ 3개 시·도 관광벨트 구축
- ④ J프로젝트·새만금 활성화

민선 6기를 맞이한 광주와 전남·전북이 거대 수도권, 영남권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때 호남권으로 불리며 국가 서남부의 축을 담당했던 3개 시·도는 민선 1~5기 20년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화합이나 선의의 경쟁보다는 저마다 잇속을 위해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은 장구한 세월 동안 동일한 문화·역사권을 형성해온 만큼 상호 협력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 추진은 물론 문화·교통·관광의 중심축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는 커녕 반목과 갈등이 주를 이루면서 추진 사업도 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남권과의 경쟁에서도 고배를 마시기 일쑤다.

무엇보다 시급한 호남권의 4대 현안은 3개 시·도의 공항 상생 문제, KTX 호남선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경쟁력 확보 방안, 광주 문화전당-전주 한옥마을-여수 세계박람회 등을 연계한 공동 관광 벨트 구축, 전남 J프로젝트와 전북 새만금 개발 사업의 상생 방안 등이다. 그러나 3개 시·도의 상생 일정은 논의 움직임조차 없는 실정이다.

호남권 4대 현안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광주 군공항의 군산공항 이전문제를 기사화한 의도가 뭐니까? 도대체 왜 광주·전남사람들은 전북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가요. 당해도 가만있으니까 만만하게 보입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 시급  
무안, 적자 해소·활성화  
군산, 국제공항 건설 꿈  
이대로 경쟁하면 ‘공멸’

지난해 9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을 군산공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이후, 자신을 전북도민이라고 밝힌 이들은 이메일 등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언론역사를 아우르는 미디어센터 건립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당신들끼리 하면서 왜 전북은 넣느냐’ 등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미디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호남이란 울타리 안에 전북을 넣지 말았으면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실제 전북 관련 보도와 관련한 전북도민의 항의의 중 공통된 불만은 “호남권에 배정된 각종 정부사업은 광주·전남만 나눠먹으면서 전북이 뒤 좀 하려고 하면 광주·전남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 민심은 민선 5기 때 광주시가 추진한 광주 군공항의 군산공항 이전 사실이 알려진 이후 탈호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전북이 상생의 연대를 하기 위해선 최근 꼬인 공항이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광주·전남·전북의 대표 공항은 광주공항·무안공항·군산공항으로, 공항문제의 핵심은 광주공항 내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군산공항 대신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우선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문제부터 들여다보면, 시는 애초 광주공항과 군 공항을 묶어 무안공항으로 옮기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국방부에 군산공항으로 이전을 요구했다가 전북지역의 반발을 샀다.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을 군산에 있는 미군 비행장으로 합쳤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전북도는 사전협의도 없이 소용이 큰 군비행장을 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천하獨尊’ 독일, 브라질월드컵 우승 독일 축구 대표팀이 14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은 뒤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역대 네 번째 우승컵을 거머쥔 독일은 남미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는 유럽 국가로도 기록됐다. >관련기사 18·19면 /연합뉴스

## 한·중 FTA 파고 해삼·부세로 넘는다

새누리당 대표에 김무성

중국서 인기 ... 전남도, 수출 전략품종으로 육성  
100만 달러 이상 수출 농수산물 6개→15개로

한·중 FTA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해삼’과 ‘부세’를 중국 수출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고, 오는 2018년까지 100만 달러 이상 중국 수출 농수산식품을 15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시 전남도 수산업의 연간 피해 예상액은 3540억~5348억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해삼과 부세의 양식 기술을 개발, 청정해역에서 키운 뒤 중국에 수출할 경우 피해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해삼은 중국 고급요리 재료로 인기가 높고, 부세는 산란기에 배 부위가 황금색으로 물들어 금을 좋아하는 중국인이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잡힌 60cm짜리 부세가 81만원에 위판될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부세는 모두 양식된 중국산 중 C~D급으로, A~B급은 중국 내에서 모두 소비된다.

도는 중국 내 인기 품종을 집중 공략할 경우 수출 증가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인 수산물 연간 1인당 소비량은 지난 2000년 24.4kg에서 지난 2011년에는 무려 32.8kg으로 급증한 바 있다.

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센터는 해삼 생리·생태를 고려한 전용 인공어초를 개

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해삼 대량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고밀도 육상수조식, 대형 침하식 가두리 양식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40억원의 국·도비를 들여 조만간 해삼센터를 준공, 해삼 수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방침이다.

부세 양식은 아직 시작 단계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면에서 조기에 밀리지만 중국에서는 조기는 소황어, 부세는 대황어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센터는 최근 중국 북경성의 부세 양식장을 찾아 부세 수정란 확보를 위한 어미 부세 이식에 대한 승인을 받고 오는 9월 어미 부세 이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는 지난해 말 현재 6개 품목인 대(對) 중국 100만 달러 이상 수출 농수산식품을 오는 2018년까지 15개 품목으로 늘려 중국 농수산물 수출 규모를 1억 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전남지역 농수산식품은 유자차(1259만8000달러), 해삼(664만4000달러), 오리털(618만7000달러), 김(507만5000달러), 미역(302만2000달러), 밤(274만1000달러)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앞으로 2년간 이끌어갈 신임 대표 최고위원에 5선의 김무성 의원(사천)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김 의원은 1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만2702표를 얻어 3만8293표에 그친 ‘진박 좌장’ 서정원 의원을 눌렀다. 또 4명의 최고위원에는 7선의 서정원, 재선인 김태호, 6선의 이인제 의원이 득표 순으로 선출됐고, 재선인 김을동 의원은 ‘여성’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수도권 한 규정’에 따라 지도부에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30 재보선 누가 뛰나  
-순천·곡성 >3면  
-민선6기 단체장에 듣는다  
-이동진 진도군수 >11면

류현진 전반기 10승 >20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독거노인 무료개안  
수술을 위한 자전거 투어  
8월 4일(월)~5일(화) 062)605-1128  
광신대학교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령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새로워진 한울 율령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에요.

\*100배 농축액: 전후 갈색 솔잎 추출물 농도 차이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2.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3. 윤기가 나빠져 햇빛이 보이는 것 같다	99%	4. 피부가 탄력 있게 느껴진다	99%
5. 피부가 차가워지고 촉촉해진다	98%	6. 피부가 맑아지고 투명해진다	99%

\*100배 농축액: 전후 갈색 솔잎 추출물 농도 차이

한국·미국·일본, 100여개국에서 공식 판매, 약도·메시지문의(www.pms.co.kr)에서 무료로 만나주세요. >고객상담실 (062-605-1128)